

# 김 건조기에 추경 60억 투입...생산량 1위 전남에 집행 가능성

### 정부,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지원 글로벌 인기에도 건조시설 없어 폐기 김 공장 시설 확충·폐기물김 줄 듯

올해 초 전남지역 김 생산 어가에서는 물김 5690t을 바다에 내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발 생겼다. 어민들이 힘들 게 키운 물김을 눈물을 머금고 폐기할 이유는 물김을 받아 줄 김 가공공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김 건조기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배정하며 김 건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K반도체'로 불릴 만큼 외국에서 인기가 높은 김을 가공 공장이 부족해 산지에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남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원이 포함됐다.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물김을 조미 김 등으로 만들기 위한 건조시설 구축에 투입된다. 추경에 배정된 60억원은 국내 김 생산량 1위인 전남도로 모두 지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김 건조기 지원사업에 국비를 투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이른바 '검은 반도체'로 떠오른 김의 글로벌 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2022년 6.47억 달러→2023년 7.92억달러→2024년 9.95억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중 전남은 지난해 기준 3.6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김 수출 지역이다. 올해 5월까지도 1.79억달러(전체의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은 물김과 물김을 말린 마른김, 여기에 마른김을 먹기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조미김 생산량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의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 42만7188t으로 전국의 77.5%를 차지했다. 마른김 생산량 생산액도 각각 76%, 81% 수준으로 전국 1위의 생산지다.

그러나 이 같은 김의 인기에도 올해 초 물김이 산지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김과 수출되는 김 가격이 상승하다보니 기존 김 양식을 허가받은 양식장 외에도 불법으로 양식하는 어가가 늘어나면서 물김이 과잉생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런 물김 생산량 증가에 물김을 받아줄 건조 공장을 찾기 어려웠던 점이 오랜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물김을 폐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남도 내 마른김 가공공장은 308곳이지만, 247곳을 제외한 61곳은 휴·폐업 등으로 미운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산지로 꼽히는 완도의 경우 미운영 공장이 24곳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휴·폐업 원인은 김 산업이 호황을 달리지 전 물김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가 설비가 노후화

돼 더는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도내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가공공장 확보에 나섰다. 또 휴·폐업 법인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건조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 지난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남도는 추경 확보에 따라 올해 노후화된 마른 김 가공공장의 건조기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다. 국비 30%(60억원)에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총 20곳의 마른김 가공공장에 건조 시설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기존 설비보다 3배 가량 건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올해 초 벌어진 물김 폐기 상황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을 단순한 농수산식품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산업 육성을 위한 '김 산업진흥원' 설립, 'K-김 국제 수출단지' 등 'K-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정(민주·진도) 전남도의회 의원은 "정부가 내년산 김 양식장 면적을 626ha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물김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에 있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마른김 가공공장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이 2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대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경(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 “수해로 훼손된 화폐 교환해 드립니다”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남은 면적 40% 이상 가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수해로 인해 훼손된 돈(소손권)을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20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폐가 젖고, 찢어지는 등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은행으로 훼손된 지폐를 가져가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남은 면적이 40~75%인 경우는 훼손 지폐 가치의 50%만 교체할 수 있고,

남은 면적이 40% 미만이면 교체가 불가능하다.

지폐가 찢어져 여러 조각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기번호 모양, 그 밖의 부분을 같은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또 물에 젖어 지폐의 면적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경우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날장이 서로 붙어 있으면 날장별로 분리해 판정한다.

지폐 뿐만 아니라 동전도 판별이 가능한 상태라면 교환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세계양궁대회 성공개최 ‘시민서포터즈’가 이끈다

### 공식 출범 활동 본격화 발대식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 서포터즈의 발대식이 열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종호 광주시장예인양궁협회장, 광주시청양궁단 최승실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시민 서포터즈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서포터즈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 활동을 본격화하는 자리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 광주대·호남대 치어리딩팀 응원 공연, 기본활동 교육 등이 진행됐다.

세계양궁대회 시민서포터즈는 총 3296명으로, 일반·응원·통역 등 3개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양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환영·환송 행사, 경기장 응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민 서포터즈는 8월 한 달간 자치구별로 순회 교육을 마친 뒤 대회 기간 전후로는 각각 선수단 환영, 경기장 캠페인 응원 등 현장 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대회 붐업 조성하고 함께 광주만의 시민참여형 국제대회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되며, 90여개국 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

당 회사는 2025년 7월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결의하여 자본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40,000주 중 30,000주를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압도받아 강제소각하여 10,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결의하였음. 당 회사의 구주권을 가진 주주와 정권자께서는 이 공고게제 익일(7월 23일) 이내에 당사 본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주식회사 나인택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관리 1357  
대표이사 김정훈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때**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중 앙**

**뭇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뭇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